

원통사 거사회의 절 가꾸기

“우리 손 거치면 빛나는 절이 된답니다”



◇올력 후 삼성각에서 독경심회에 빠진 거사들.

“요즘 정말 경기 말이 아니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차(車)도 잘 쓰지 않는지 정비소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힘들지? 그럴수록 마음을 느긋하게 먹어야 해.” “그럼, 불경기일 수록 마음을 관(觀)하도록 하겠.” 7월 6일 오전 9시 30분, 원통사를 올라가는 산행(山行) 길에서 이러한 대화들이 오갔다. 자동차 정비소를 한다는 한 젊은 거사가 사업이 잘 안된다고 푸념하자 나이 지긋한 거사들이 격려를 해준다. 40여명의 거사들은 커다란 짐을 하나씩 지고 있으면서도 정담계 대화를 나누며 가볍게 산길을 걸어간다. 쌀, 배추, 나물, 과일 등 절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이렇게 등짐으로 절에 운반된다.

사찰의 거사회가 늘어나고 있다지만 아직도 절에서 남자신도를 보기는 흔치 않은 일. 대부분의 사찰에서 보살들의 주도하에 일이 진행된다. 거사회가 있다 해도 정기적인 모임만을 가진다거나, 보조 정도에 머무는데 비해 원통사는 거사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1991년 결성돼 12년의 역사를 가진 원통사 거사회는 70여명이 등록돼 있지만 활발하게 참여하는 인원은 40여명. 그들은 참배만 하고 간다거나 뒷집 지고 관망만 하는 신도 이길 거부한다. 절 살림을 내 집 살림처럼 자상하게 행한다. 절 곳곳에 거사들의 땀이 배었고 손길이 닿아 있다.

말 없어도 손, 발, 호흡 척척

도봉산 원통사(주지 원철)는 해발 640m 정도에 위치해 있다. 산 입구 우이동에서부터 평균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도중에 바위사이를 넘어야 하는 난코스(?)도 있다. 때문에 원통사는 쌀, 반찬거리는 물론, 일상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일일이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원통사는 신중기도, 관음재일, 나한기도 등과 함께 일요일도 열고 있다. 대부분 직장이 있는 거사들은 아무래도 일요일에 갈 수 밖에 없다. 대형 냉장고, LPG 가스통, 컴퓨터 등은 물론, 시멘트, 종이, 페인트, 연통, 그릇 등 모든 물품이 매주 거사들의 등 신체를 졌다. “저기 관음보전 지붕 양쪽에 있는 용머리를 옮길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의 무게가 자그마치 200kg거든요.”

3년전 동기와로 장엄된 관음보전을 가리키며 이종인(거사·김상사 관리장·54)가 말했다. 요사채는 푸른 기와를 덮고 있다. 이 모두 거사회를 비롯 신도들이 일일이 쳐나른 것이다.

일요일인 6일, 거사들은 절에도 착하자마자 물건을 정리한 후 도량 정비에 들어갔다. 일부는 무너진 흙담을 손보고, 일부는 장맛비에 진땀 자란 풀들을 베어내기 시작했다. 흙과 시멘트를 나르고 담에 들어갈 낡은 기와장을 가져오고 담의 모양을 다듬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지시도 없다. 척척 진행된다. 1시간여가 지나자 낡은 기와장이 켜켜 들어간 깔끔한 토담이 모양을 드러냈다.

중무소 옆 방은 올 4월에 거사들이 직접 만들었다. 기초를 다지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고, 전기선 배선, 보일러 놓는 일, 도배까지 다 했다. 청소, 보수 뿐 아니다. 도량 여기저기 잘 고른 발에는 상추 고추 깻잎 배추 무우 등이 지르고 있다. 거사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추수까지 한다.

원통사는 도봉산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등산객이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통사 해우소는 등산객들이 수시로 들르는 장소다. 봄 가을 가득 찬 인분을 퍼서 거름으로 삭히고 밭으로 내는 일도 거사들이 하고 있다.

“탐진치 버리듯 인분 치웁니다”

“흔히들 더럽다고 상을 찡그리고 그러잖습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몸의 영양분이 되고 남은 것이 퐁과 오줌이 되어 다시 밭에 뿌려지면 알곡과 채소들을 살지우는 거름이 되지요. ‘不垢不淨’ 이라고 매일 외우잖아요.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는 치웁도 치웁도 금방 차는 분노를 보면서 그것이 탐진치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해우소를 가지 않을 수 없듯 탐진치 삼독을 버리도록 매일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 김경세 회장(한국오리엔티어링협회 회장·64)의 말이다.

올력과 점심공양을 마치면 교양대학에서 공부를 하거나 법당에서 독경을 한다. 교양대학은 3기가 공부중이다. 1년 코스인 교양대를 수료한 거사들은 삼성각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 삼매에 빠지거나, 태초 이성계가 기도했다는 동굴법당 나한전에서 참선에 든다.



◇거사들이 무너진 담을 다시 쌓고 있다.

“젊은 불자 많이 키워야”

“법회에 참석하는 군인들을 보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젊은 그들에게 불교의 진정한 맛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비록 햄버거를 먹기 위해 군법당에 왔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이 마음밭에 뿌려지면 당장에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싹이 트겠지요.”

거사회는 관음회(보살들 모임)와 함께 2달에 한번씩, 자매결연을 맺은 연천 5사단 35연대를 방문한다. 군인들과 함께 법회를 보고 음식을 나누고 상담도 해 주는데, 군복자 키우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구동성.

“요즘 풍물을 배우고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부처님오신 날 연등만 들고 걸으려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풍물을 배워 제등행렬때 신나게 분위기를 띄우고, 군법당 위문 때도 보여주고 싶어요.” 젊은 피를 수혈해, 현재 평균연령이 50대인(회)를 좀 젊게 했으면 하는 것도 조그만 바람이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와 조난당하거나 다친 사람들을 돌봐 주는 일도 거사들이 자원해 하고 있다. 등산로 곳곳에 거친 바위를 다듬고 계단을 만들어 좀더 수월한 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오가는 등산객들이 다칠까봐 거사원들이 시간을 내 틈틈이 손을 본 덕분이다.

원통사 총무 황산스님은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위치가 있어 존경받는 분들이지만 늘 하심하고,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절 일이라면 몸을 아끼지 않아 고맙다”면서 “심상학 교문, 김경세 회장, 신회원 감사 등 임원진이 무거운 짐을 자청해 지고 올라오는 등 숭선수범하는 데다, 서로 서로 아끼고 챙겨주는 가족적인 분위기와 관음봉(우이암) 바위처럼 견고한 신심이 우리 거사회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글=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여시아군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8881(대)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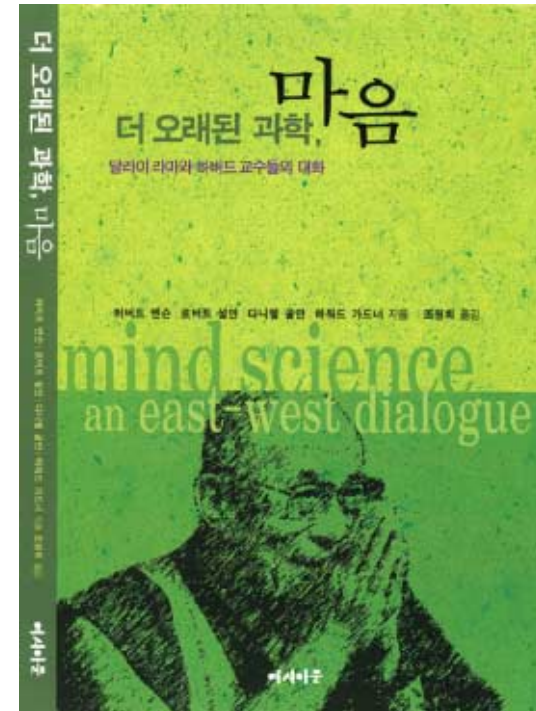
“마음은 정신적 사상이 상호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음은 몸의 생리학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역동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 달라이 라마 -

마음 더 오래된 과학

달라이 라마와 하버드 석학들 '마음과학(Mind Science)'에 대해 말하다

마음과 몸의 미세한 관계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 불교 사상의 대가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통합하여 마음의 본성, 인간성장 잠재력,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은 현대 과학과 불교 간의 역사적 대화의 시작을 기록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탐구한다. 달라이 라마가 인도·티베트 불교학, 의학, 정신의학, 심리학, 신경생물학, 교육학의 권위자들과 만난 하버드 의대 심포지움에 기반하여 인지, 인식, 마음과 몸 연결 작용에 관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199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서양 의료 체계에 마음의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주로 하버드 의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던 심리적(心的)요소를 인정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마약 성분의 진통제 투여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만성 통증 환자에게 동양의 명상 기법을 도입하여 환자 스스로 통증을 받아들이고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 통증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통증을 받아들이는 환자가 변해 주위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도록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환자의 심적 요소를 개선하여 삶의 태도나 질을 개선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양의 명상 기법을 도입하였다. 이제 이런 의학계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낮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하버드 의대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것일까? 그 해답은 하버드 의대의 하버드 벤슨 박사에게 있는데, 그는 달라이 라마의 허기를 받아 80년 초부터 티베트 명상 기법을 포함한 여러 명상기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측정했다.



하버드 벤슨 외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200면 / 9,000원

mind science

☎ 법보시 연락은 02)737-0695로 연락 주십시오.